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8.30원 상승한 1,172.70원에 마감

24일 환율은 전일대비 8.30원 상승한 1,172.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60원 상승한 1,171.0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리스크오프 분위기에 갭업 출발한 환율은 오전 중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1,170원대에서 네고물량 유입으로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오후들어 국내 증시가 낙폭을 확대하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이에 연동으로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일대비 8.30원 상승한 1,172.70원에 마감하였다. 시장평균환율은 1,170.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113.66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71.00	1172.90	1167.40	1172.70	1170.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05.73	1114.56	1105.73	1111.85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7.56	1370.51	1356.52	1368.21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5	-0.62	-1.75	-4.05
	결제환율(수입)	0.13	0.43	0.49	0.1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리스크오프 진정분위기 속 장중 수급에 주목하며 1,170원대 초반 등락 예상

금일 환율은 1,170원대 초반 중심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72.70원) 대비 2.35원 내린 1,170.4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분위기 진정되며 갭 다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시는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가 부양책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다. 최근 6% 가까이 하락한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석연휴를 앞둔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유입과 수급상 결제 수요 우위인 점을 반영하며 장중 수급에 따라 변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67.00 ~ 1172.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922.4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35원 ↓
	■ 美 다우지수 : 26815.44, +52.31p(+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0.5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62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